

주 제:	“하느님의 일”	“연중 제 22 주일”	2008년 8월 31일
복음 묵상:	마태 16,21-27	[예레 20,7-9]	[로마 12,1-2]

마음의 눈이 어둡고 현세와 타협을 잘하는 우리들은 이 반석과 걸림돌의 차이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와 달리 극명하게 구별되는 예수님의 분별력과 처신은 바로 사도가 로마인들을 독려하는 편지내용들의 근거였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비록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여 두렵기가 예레미야 예언자의 적나라한 한탄과 같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그의 절규처럼, “뺨속에 가두어 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낼 수 없는” 구원을 향한 저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열망을 하느님께서 불 질러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길로 불린 목마름만으로도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 각자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십자가는 우리 눈을 맑게 하고 귀를 밝게 하여 하느님의 것과 현세의 것을 냉철하게 구별하게 해줍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장차 다가올 큰 기쁨에 놀랄 준비를 하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세례 때 결심한 성화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으니, 주님의 초대에 응하기를 새삼 두려워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의정부 한상만 신부님 강론 중에서)

##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안 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과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부부님이 일주일 여정으로 캐나다로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신계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력과 이흥진 데레사 자매님력; 가족 동반 여행을 떠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김 효식 필립보 네리 형제님, 금주 동부여행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행중에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이 은순 아네스 자매님은 아직도 여행중입니다. 여행중에 주님함께 하시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요청:

1. **성가대 피정(9/13)이 잘 진행되어** 모든 성가대 가족들이 은혜중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봉사자와 참가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신부님을 위한 영적선물;** 미사(2번), 영성체(2회), 묵주기도(35단), 화살기도(10번), 사체를 위한 기도(10번), 희생(2번), 선행(5번) 등 신부님을 위한 영적 선물을 기도중에 꼭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3. 김 재훈 세실리아 자매님과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들이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돌아오시길 기도중에 주님께 청해 주십시오..

알림; 금주 8/31(일) 교중미사시간에 양 바오로 본당신부님 환송식이 있습니다.



그 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 주셨다.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다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장애물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터인데 그 때에 그는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줄 것이다.

1분 명상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에게 고갯길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저절로 굴러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돌을 오히려 발판으로 만들어 가게  
 해 주십시오.  
 넓은 길, 평탄한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좁고 험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도록 더욱 깊은 믿음을 주십시오.  
 넓고 푸른 또 다른 인생의 초원이 주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의 양 우리가 행복의 보금자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착한 목자이신 주님, 보살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조건 없이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당신으로 인해 행복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